

‘金’빠진 더민주 전대...추미애·송영길 대결구도

〈부경〉

정권교체 올인 대권 도전 시사 이종걸·박영선 등 출마 저울질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 갑) 의원이 23일 8·27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당권 레이스는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추미애 의원과 송영길 의원의 대결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비주류 진영의 강력한 후보였던 김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 전대 흥행은 다소 김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비주류 진영의 박영선, 이종걸 의원 등이 출마를 놓고 고민하고 있지만 판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정권교체를 위해 뛰겠다”며 전대 불출마 입장과 함께 “그 앞에 있는 정치적 진로를 열어두겠다”며 대권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입장 발표문에서 “지금 더민주의 절체절명 과정은 정권교체”라며 “당 대표 여론조사에서 1위가 나오면서 여러 선후배 의원들이 출마를 권했고 저 스스로 (당권 도전에) 고민도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당은 꼭 제가 아니라도 수권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렇다면 남은 것은 정권교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다. 지금부터 그 역할을 진지하게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부는 쟁기를 밟을 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한다. 앞으로 앞만 보고 걸어가겠다. 그 앞에 있는 정치적 진로는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당보상대였던 당권 레이스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장, 주류 진영의 추미애(5선) 의원과 송영길(4선) 의원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기 폭발 8.27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강연자로 참석해 학생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이 고향인 송 의원은 호남 출신 당 대표론을 내세우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선후보가 비호남 출신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가능하면 호남 출신이 당 대표가 돼 대선 주자와 함께 뛰는 것이 정권 교체의 희망을 높이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동안 그의 정치적 궤적이 호남과 거리가 있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호남 대표론이 설득력을 가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추 의원은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과

거 당이 후보를 돌지 못하고 흔들렸던 전례가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대선 후보를 지켜주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 선명 한 각을 세우는 강단 있는 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 민주계 비주류에서, 친문 주류 진영으로 정치적 전향을 했다는 비판이 부담이다. 한편, 김 의원의 불출마로 비주류 진영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비주류 진영에선 이종걸, 박영선, 신경민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단일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강력한 비주류 주자가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실적으로 당내 친문 주류의 세를 극복하기 쉽지 않아 정치적 틀러리를 설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내달 초까지는 전대 출마를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확정위 여야 추천 줄이고 의결요건 완화를”

선관위, 선거법 개정의견 제출...안심번호 활용 의무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선거구 확정위원회 운영과 관련, 원활하고 속도감 있는 의사진행을 위해 여야 추천 몫 위원의 비중을 대폭 줄이고 의결 요건은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에서 전체 확정위원 수는 9명으로 유지하는 한편, ‘교섭단체를 이룬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중 공직하고 중립적인 6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확정위가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을 여야가 각각 4명씩 동수 추천하는 구성 방식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해득실이 엇갈린 여야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올러 확정위안과 그 보고서의 의결 의견을 현행 제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은 사전에 미리 등록하고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의무적으로 활용해 여론조사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도 내놴다.

또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 및 정당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안심번호 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보다 많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취지의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안철수 안보행보...김수민 소환엔 침묵

국민의당 평택 2함대 사령부 방문 천안함 현화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박지연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 15명은 23일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던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방문했다.

안 대표가 4·13 총선 후 군 부대를 방문한 건 이번이 두 번째로, ‘안보정당’ 이미지 부각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1991년 전해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해 이곳에 오니 그 향에 온 것 같다. 당시 어린 수병들이 배의 페인트가 벗겨진 걸 때 내려고 망치로 두드리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두 동강 난

천안함 선체 앞에 묵념하고 현화한 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튼튼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수민 의원이 이날 검찰에 출석해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지금은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해서 이곳을 방문한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고, 함정에 탑승해 의원단과 점심 식사를 했다.

국민의당은 오는 24일 경기도 의정부 육군 제56사단 223연대의 노후 군 관사를 방문하기로 하는 등 안보정당 행보를 계속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권성동 사퇴...새누리 내분 일단락

정진석 중재...후임 임명 등 갈등 불씨 여전

새누리당 권성동 사무총장이 23일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결정을 받아들여 사퇴하기로 함에 따라 당 내분 사태가 또한 고비를 넘겼다.

비박(비박근혜)계인 권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복당 결정의 책임을 나에게 묻는 듯한 처사로 인해 사무총장직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오는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유감을 표명해주고 앞으로 혁신비대위를 잘 이끌겠다고 각오를 말씀하신 만큼 (사퇴를 요구하는) 비대위원장의 뜻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권 총장이 사퇴를 받아들인 것은 전날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친박계 김선동 의원을 비공개로 만나 “교체 배경을 복당 결정이 아닌 당무에 대한 견해차로 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던 게 사태 해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계파간 갈등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친박계에서는 의원총회를 열어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복당파의 사과 등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후임 사무총장 임명도 남은 불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野’ 광주시의회, 12년만에 교섭단체 구성

더민주 2명 불참 11명 등록...26일 하반기 의장 후보 선출

양당체제로 재편된 광주시의회에 12년 만에 교섭단체가 등장했다.

광주시의회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23일 의회 사무실에 원내 교섭단체를 등록했다. 의원들은 이날 조찬 모임을 하고 원내 대표로 김보현 의원, 대변인으로 임택 의원을 선출했다.

광주시의회에서 교섭단체가 구성된 것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양당체제였던 4대 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 무렵인 2004년 이후 12년 만이다.

그러나 더민주 소속 13명 의원 가운데 2

명이 교섭단체에 참여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 이들 의원은 의회 내 제1당으로서, 의장단 선거운동을 위한 교섭단체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더민주 의원들은 오는 26일 하반기 의장 물망에 오른 조오섭·김영남 의원 가운데 단일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교섭단체 반대 의원들은 의장 선거 결과에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외 국민의당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광주시의회 의장 선거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 간 일대일 대결이 될 공산이 크기 때

문이다. 수적으로는 더민주가 우위지만 친소관계 등에 따른 이탈이 나오면 당선을 장담하기 어렵다.

더민주 중앙당은 ‘광역·기초 의회 (부) 의장 선출에 관한 지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에게 보내 다른 정당과의 야합이 없도록 관리·감독하고 사전 선출된 당 후보가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최근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지만, 양당체제로 가는 부분에 대

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지난 21일 전반기 임시회가 마지막 으로 열렸는데,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시간이 사실상 부족하다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17일 양당 체제인 점을 감안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예산 2억원(사무실 리모델링 및 집기)을 편성했다. 전남도의회는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요구가 있을 경우 전남도의회 2층에 사무실·부속실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종걸기자 gilee@kwangju.co.kr

경 축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오픈

Self MG 서양새마을금고

모집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거래투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문의 | (062) 720-2872